

기획논단

**한국 근현대사 역사교육에서
평화교육 어떻게 할까?
- 초·중·고 교과서의 3.1운동 서술을 중심으로 -***

김지연**

-
- I. 들어가며
 - II. 교육과정 상의 3.1운동
 - III. 평화적 관점에서 본 3.1운동 서술
 - V. 나가며
-

【국문초록】

초·중·고 한국사 교과서의 3.1운동 서술은 이전 교과서에 비해 학계의 연구성과를 반영하여 진일보해 왔다. 본 글에서는 3.1운동에 대한 교과서 서술을 평화적 관점으로 분석하며 3.1운동을 평화교육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다.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검정체제로 운영되어 다양한 서술 시도가 가

* 본고는 2020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 제1차 워크숍(2020.08.15.) 「역사교과서에 ‘평화’ 어떻게 기술할 것인가?」의 발표 요지를 수정 및 보완한 것이다.

** 국립국악중학교 역사교사

능함에도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배경-전개과정-의의로 이어지는 유사한 서술구조를 보였다. 서술에 있어 좀 더 과감한 시도가 요구된다. 서술 내용에 있어서는 첫째, 다원성을 살린 서술 시도가 있었다. 앞으로 유관순 등 몇몇 역사인물 소개에서 벗어나 다양한 참여 주체들의 이야기를 담은 서술, 서울 중심으로 시위의 시작을 서술하는 남한 중심 사고를 벗어나 다양한 지역에서의 활약을 담은 서술, 민족-국가주의 시각을 벗어나 당대 외부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3.1운동에 대한 서술 등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 3.1운동과 폭력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는 이전 교과서의 틀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운동의 탄압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의 사실을 교과서에 신는 문제, 탄압하는 일제와 저항했으나 희생된 한국인의 프레임, 폭력 시위로의 전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 그리고 3.1운동을 상징하는 비폭력 평화 시위에 대한 인식 재정립이 요구된다. 셋째,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3.1독립선언서>는 형식적으로 언급되는 자료에 불과하였다. 3.1운동 속에서 평화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는 자료로서 <3.1독립선언서>를 강조하고 더 깊이있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3.1운동, 평화적 관점, 다원성, 독립선언서, 비폭력성

I. 들어가며

역사교육에서 평화교육은 통일 문제나 전쟁에 국한된 교육이 아닐 것이다. 구조화된 폭력의 잠재력을 인지하는 감수성과 비판적 사고 능력, 갈등 상황을 비폭력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차원에서 여러 역사 사건들은 평화교육의 소재가 되기에 충분하다. 지난 2019년 100주년을 맞았던 3.1 운동 역시 평화교육의 차원에서 그 의미를 살리기에 적절한 주제이다. 역사학계에서는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

차원에서 3.1운동을 새롭게 보려는 시도가 있어 왔다. 그러나 교과서가 최근 학계의 성과를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 교과서로 공부한 3.1운동의 지식이 한 사회와 국가의 공식 기억 대부분을 형성한다는 면에서 현 교과서의 3.1운동 서술을 평화교육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안점을 찾는 것은 의미 있는 시도라 하겠다. 이 글의 분석대상은 2020년 현재 초·중·고에서 사용하고 있거나 곧 사용할 예정인 역사(한국사) 교과서이다.

II. 교육과정 상의 3.1운동

서술의 양으로만 본다면, 전체 143페이지 중 세 페이지를 할애하여 서술한 초등 교과서의 3.1 운동 서술 비중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이번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중학교-고등학교 교과서가 전근대사-근현대사로 내용을 구분하여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근현대사의 비중이 크게 줄어들어 따라 3.1 운동에 관한 서술 비중도 함께 축소되었다. 중학교 모든 교과서가 한 페이지 정도로 3.1 운동에 대해 정리하고 있으며 '3.1운동이 일어났다' 수준으로 끝낸 교과서도 있다. 반면 근현대사 위주로 서술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3.1운동을 3-4페이지에 걸쳐 상세히 다루고 있다.

초·중·고 교과서에서 3.1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기 다르지만, 세 교과서 모두 일제 강점기 단원의 한 소단원으로 설정하여 3.1운동을 서술하고 있기에 교육과정 상에서 중요성을 갖는 사건이라 할 수 있다.

<표 1> 초·중·고 역사교과서 편제 상의 3.1운동

학교급	초등	중등	고등
분석대상 교과서	교육부, 『사회 5-2』 (2019)	『역사2』 6종(2020)	『한국사』 8종(2019)

대상 단원	전 근 대	1.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I. 선사문화와 고대 국가의 형성 II. 남북국 시대의 전개 III. 고려의 성립과 변천 IV. 조선의 성립과 발전 V. 조선 사회의 변동	I. 전근대 한국사의 이해
	근 대	2. 사회의 새로운 변화와 오늘날의 우리 ① 새로운 사회를 향한 움직임 ② 일제의 침략과 광복을 위한 노력 ① 대한제국 시기에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아봅시다. ② 을사늑약의 과정과 항일 의병의 노력을 알아봅시다. ③ 나라를 지키기 위한 안중근의 노력을 알아봅시다. ④ 한국인들이 고국을 떠난 까닭을 알아봅시다. ⑤ 3.1운동을 알아봅시다. ⑥ 나라를 되찾으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노력을 알아봅시다. ⑦ 나라를 되찾으려는 다양한 노력을 알아봅시다. ③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과 6.25전쟁	VI. 근현대 사회의 전개 1. 국민국가의 수립 ① 근대 국가를 세우기 위해 노력하다. ② 항일 민족 운동을 전개하다. - 3.1 운동의 전개 -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수립과 활동 - 국내 민족운동의 전개 - 무장 독립 투쟁의 전개 ③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다. 2. 자본주의와 사회 변화 3. 민주주의의 발전 4.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II. 근대 국민국가 수립운동 III.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1. 일제의 식민지 지배 정책 2. 3.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3. 다양한 민족 운동의 전개 4. 사회문화의 변화와 사회운동 5. 전시 동원 체제와 민중의 삶 6. 광복을 위한 노력 VI. 대한민국의 발전

<표 2> 학교급별 3.1운동 관련 성취기준

초	[6사04-04] 광복을 위하여 힘쓴 인물(이회영, 김구, 유관순, 신채호 등)의 활동을 파악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노력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기른다.
중	[9역12-01] 국민 국가를 건설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을 살펴보고, 그 결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음을 이해한다.
고	[10한사03-02] 3.1 운동의 배경과 전개 과정을 이해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의미를 파악한다.

3.1운동과 관련해 학생들이 배워야 할 내용과 수업 후 기대되는 능력으로 <표2>와 같은 국가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초등에서는 3.1운동 등의 독립운동을 인물 중심으로 학습하여 정의적 역량을 기르도록 하고 있으며 중등에서는 한국 근현대사 파트를 주제 중심의 큰 틀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이해하도록 하고 있어 3.1운동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국민국가 수립’이라는 소주제의 학습요소 중 하나로만 제시되었다. 고등학교 성취기준은 3.1운동을 배경-전개과정-의의의 구조로 파악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제시된 성취기준을 바탕으로 서술된 초·중·고 교과서는 한결같이 배경과 전개과정의 순서로 3.1 운동을 서술하고 있다. 전개과정에서도 ‘민족대표 33인-학생/시민의 참여-시위의 확산-일제의 탄압’이라는 동일한 서술 구조를 보인다. 차이가 있다면, 중·고등 교과서에서는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를 덧붙였다. 교과서에 일률적으로 제시된 역사적 의의는 학생 스스로 사건의 의미를 탐구하게 하기보다 또 하나의 암기 대상을 제공할 뿐이라는 지적이 많지만 3.1운동의 의의는 다른 사건에 비해서도 특히 더 양이 많고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반면,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역사적 의의에 대해 다루지 않고 전개과정을 서술하는 것으로 끝맺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의 인지 능력을 고려한 것이겠지만 하나의 사건을 서술함에 있어 완결성을 갖춘 서술이라 보기 힘들다. 3.1운동을 그저 소리 높여 만세를 외친 사건으로만 인식할 수 있으며, 인권이나 평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그 의미를 스

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위의 교육과정 편제와 성취기준에 따라 각 교과서에 서술된 3.1운동의 서술구조는 다음과 같다. 검정교과서 체제로 운영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공통적으로 서술된 내용만을 정리하였는데, 중등 6종과 고등 9종 교과서가 모두 유사한 흐름으로 배경-전개과정-의의 구조를 채우고 있었다. 출판사 별로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검정 교과서가 대부분 유사한 서술구조를 보인다는 것은 여전히 고정된 3.1운동 서술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검정제도의 의미를 살려 3.1운동에 대한 새로운 서술을 시도하는 교과서의 등장이 필요해 보인다.

<표 3> 초·중·고 역사교과서의 3.1운동 서술구조

구조	초등	중등	고등
배경	1차 대전 후 패전국 식민지의 독립 → 한국인은 독 립의 기회로 인식	민족 자결주의, 도쿄 유학생들의 독립선언	민족자결주의, 파리 강화회의에 김규식 파견, 도쿄 2.8 독립 선언, 고종의 서거(독살설에 분노)
전개	민족대표 : 독립선 언서 작성, 만세시위 준비 → 독립선언식 (3.1) 학생-시민 : 만세시 위(탑골공원) ↓ 만세시위 전국 확산 국외로 확산 일제의 잔인한 진압 : 제암리 학살 [교과서 속으로]유 관순	민족대표 33인 : 독립 선언(서울 종로) 학생-시민 : 만세 시위(탑골공원) ↓ 주요 도시에서 만세 시위 국외로 확산 일제의 폭력 진압 (제암리 학살) 만세시위는 무력투 쟁화	민족대표 33인 : 독립선 언(태화관) 학생-시민 : 만세시위(탑 골공원) ↓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 국외로 확산 일제의 무자비 탄압(제암리 학살) ↓ 농촌으로 확산(무력투쟁화)

<p>의의</p>		<p>-다양한 계층 참여 : 민족 운동의 주체가 확대 -자주독립을 향한 한국인의 열망과 의지를 알린 사건 -일제의 통치 방식을 바꿈 -중국 5.4운동과 같은 다른 나라 민족 운동에 영향</p>	<p>-우리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족운동(단합된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알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민족 운동 주체 확대→ 다양한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토대 -일제 문화통치로 전환 -반제국주의, 인도주의 운동 → 약소민족의 반제운동에 영향</p>
-----------	--	---	--

III. 평화적 관점에서 본 3.1운동 서술

역사 사건을 평화적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첫째, 국가 중심의 서사에서 벗어나 사건에 참여한 다원적 행위자의 다양한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둘째, 그간 권력의 그늘에 가려져 배제되어 왔던 목소리를 발굴하는 것, 셋째, 갈등을 노출하거나 해결하는 방안으로서의 폭력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것, 넷째, 사건에 내재된 평화의 정신을 되새기는 것을 평화적 관점으로 보고 이러한 관점에서 교과서의 서술을 분석하고자 한다.

1. 다원성의 관점에서 본 3.1운동

1) 다양한 주체들에 대한 서술

<머리말>에서 역사 학습의 목적을 ‘우리 역사 발전에 이바지한 인물들의 활동을 통해 우리 역사 발전 과정을 이해한다’고 밝힌 초등 교과서에서는 3.1운동 관련 인물로 ‘유관순’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 분량의 1/6 가량을 할애해 유관순의 만세시위와 순국에 대해 다룬다.



<그림 1> 초등 교과서에서 다루는 유관순(초등 『사회 5-2』, 125쪽)

유관순의 순국에 대한 강조는 그동안의 모든 학교급 교과서에서 반복되어 온 일이다. 그러나 유관순은 해방 이전까지 세상의 주목을 받지 못한 인물이었다. 해방 직후 ‘한국의 잔다르크’, ‘순국의 처녀’로 이미지화 되어 알려졌고 당시 격화되는 좌우 갈등을 극복하고 이념을 뛰어넘어 민족의 이름으로 함께 기려야 할 대상으로 영웅화되었다.¹⁾ 그리고 1980년대 이후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실리면서 더욱 신성한 인물로 여겨지게 되었다. 처음 부각시킨 목적 자체가 ‘영웅화’였고 이 서술이 온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사용되는 초등 교과서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관순 중심의 서사는 학생들이 역사가 ‘나와는 거리가 있는 비범한 이들이 만들어 가는, 영웅들의 이야기’라고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 나라를 잃었을 때는 죽음을 두려워 말고 유관순처럼 앞장 서야 하며 감옥에서까지 독립 만세를 외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영웅 중심의 단선적 서사에서 탈피해

1) 김정인, 2018, 「3.1운동과 기억: 교과서로 익힌 상식을 짚어보다」, 『역사교육연구』 32, 180~181쪽.

교과서 3.1 운동 사진에 등장한 많은 사람들, 다양한 목적과 사연을 가진 다원적 주체들의 이야기를 관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다.

2020년부터 사용되는 2015 개정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그런 시도들이 눈에 띈다. 황에스더나 김마리아, 유형숙, 정철성, 박자혜 등 유관순 이외에도 3.1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여성들이 있었음을 서술하여 당시 여성이 객체가 아닌 주체로 참여했음을 밝히는 것은 3.1운동이 전민족적인 함께 참여한 저항이었음을 인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3.1운동을 이끌어간 동력으로서 ‘만세꾼’이라는 다소 독특한 존재를 부각하여 3.1운동을 좀 더 입체적으로 느끼게 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로 서술하고 있는 ‘진계층이 참여한 독립 운동’이나 그래프로 제시된 ‘수감자의 계급·계층별 분포’만으로는 3.1운동의 평화적 정신을 담아 내기 어렵다.

<표4> 3.1운동의 다원적 주체에 대한 서술 내용



역사 이야기

3·1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의 이야기

“ 우리의 조국은 결코 남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여성들도 독립운동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역사의 수레는 한 배퀴만으로 달리지 못한다 ”

동경 유학생회가 2·8 독립 선언을 앞두고 여자 유학생을 배제하려 하자, 황에스더는 이 외 같이 열변을 토하며 참여하였다고 한다.

나라의 독립에 어찌 남녀의 구분이 있었는가? 하지만 여성 차별적인 인습을 풀고 독립 운동에 나서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였다. 이후 황에스더는 친구 김마리아와 함께 귀국하여 3·1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투옥되었고, 출옥 후에도 대한 애국 부인회를 만드는 등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 황에스더(왼쪽)와 김마리아(오른쪽)



◎ 유관순

한이순 민경문

피고 한이순 등은 찬안 사립 광명학교 학생으로 독립 만세 운동을 공모하고 3월 20일 학생 약 80명을 인솔하여 양대리 시장에 이르러 국기를 흔들고 조선 독립 만세를 불렀다.
- 광주 저널, 법원 1919. 4. 28. -

3·1 운동에 앞장선 여성은 황에스더나 김마리아 같은 엘리트만이 아니었다. 찬안 아우내 장터에서 만세 시위를 주도한 유관순은 이화 학당 고등부 1년 학생이었고, 당시 최연소 수감자였던 한이순은 불과 13세의 옛된 여학생이었다.


3·1 운동을 거치면서 여성 스스로가 역사의 주체라는 자각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독립운동 참여는 물론, 여성 인권과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여성 운동도 활성화되었다.


(고)미래엔, 172쪽

지역사 탐방

광주 수피아여학교의 윤형숙을 만나다

광주광역시





광주 수피아여학교 교사와 학생들은 1919년 3월 10일 장날을 이용해 일어난 광주 3·1 만세 운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일제는 학생과 시민, 농민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만세 시위에 헌병과 기마대를 투입하여 가혹하게 진압하였다.

광주 수피아여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윤형숙은 앞장서서 만세를 부르다 일본 헌병이 내려친 칼에 왼쪽 팔이 잘렸다. 그러나 오른손으로 태극기를 다시 집어 들고 끝까지 만세를 불러 진압하던 일본 군을 놀라게 하였다. 윤형숙은 이날 만세 시위의 주동자로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광주 3·1 만세 운동 기념 동상의 뒷면에는 당시 일제에 의해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옥고를 치른 23명의 명단이 새겨져 있다. 또 윤형숙이 태어난 전라남도 여수시 이순신 공헌에는 윤형숙의 항일 투쟁을 기념하는 조형물이 있다.

우리집
광주 남구 문화관광

◀ 광주 3·1 만세 운동 기념 동상(광주 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 교내)

(고)씨마스, 180쪽

역사 돌아보기

3·1 운동을 통한 학생과 여성의 발견

연인원 200여만 명이 쏟아져 나와 새 달 동안 전국적으로 만세 시위를 벌인 것은 우리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었다. 특히 시위를 주도했던 학생과 여성의 활동은 3·1 운동 이전에는 보기 힘든 새로운 사회의 모습이었다. 1920년대 이후 사회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학생과 여성이 3·1 운동을 통해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학생의 발견

일제는 '충성스럽고 양순한 신민'을 기르기 위한 교육 하였다. 그러나 신식 교육을 받은 많은 학생이 3·1 운동을 주도하여, 일제에 큰 충격을 주었다. 이후 학생들은 민족 운동과 사회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독립운동가 김산은 당시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였다.

“우리는 수질 땅이 다른 학생, 시민들과 함께 대오를 이루어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면서 거리를 누볐다. 나는 너무나 기뻐서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다. 모든 사람들이 완호하였다. 나는 흥분한 나머지 하루 중일 밤 몇 번 정도 잊어버렸다. 3월 1일 저녁을 잊은 조선인이 수백만 명은 될 것이다.”

- 남 태필주, 『이리집』

3·1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



○ 신교서(1901~1936)
연성고교 학생으로 3·1 운동에 가담하였다가 퇴학당하였다. 이후 신촌 7개교를 돌아다니며, 소위 '신학사'를 열려고 시도가 되었다.



○ 윤세환(1901~1942)
3·1 운동 때 동양에서 만세 운동을 주도하다 출국으로 입건되었다. 신촌 우원 학교에서 군사 교육을 받았고, 조선을 독립시키게 되었다.

여성의 발견

3·1 운동에 참여한 여성들



○ 김현심(1897~1956)
가정으로 3·1 운동에 참여하였다. 이후 기침을 시작으로 폐에서 양극성으로 사회주의 사상을 접하였다. 여성 운동에 참여 조선 여자 운동회, 신간회의의 근무를 열심히 하였다.



○ 김자혜(1895~1943)
출처부 적인 간호부 근무 하던 중 3·1 운동에 참여하였다가 체포되었다. 출간한 『방랑의 고관부』와 『내 마음』로 3·1 운동의 열정을 표현하였다. 1943년 10월 25일 사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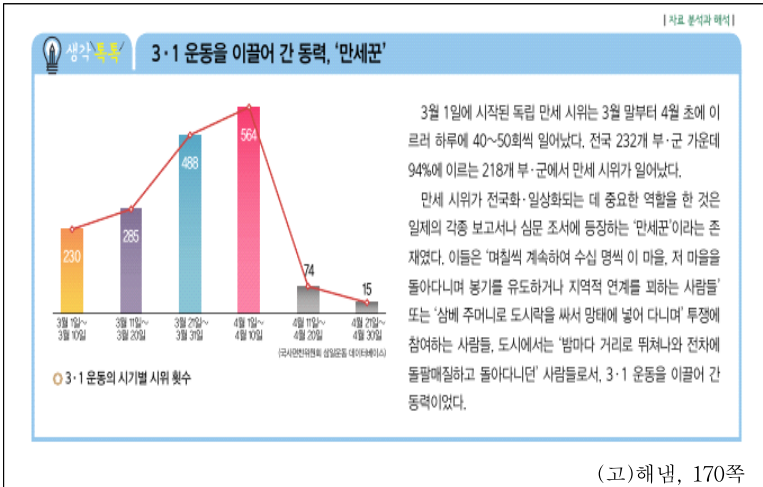
3·1 운동 당시 여성들 역시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여성들이 경찰에 검거되고 투옥되며 모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은 이전에는 보기 힘든 일이었다. 3·1 운동 이후 여성들은 여러 분야의 사회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다음은 미국 기독교 연합회 동양 문재 연구소에서 출간한 3·1 운동 비사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3월 5일, 나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는 조국의 자유를 열거하면서 남대문을 떠나 행진하고 있었다. 서울에서 종로를 향해 전진하면서 '만세'를 외치며 지나고 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미수공 가짜에 이르자, 갑자기 일본 경찰이 달려들었고, 그중에 한 경찰은 내 머리카락을 뒤에서 잡아당기고서 무심하게 나를 땅에 던뜨었다. 발길이 사정없이 내 얼굴과 배를 쳤다. 손과 발에는 피가 흘러 진흙처럼 묻었고, 땀은 푼고 퍼렇게 말아들고 있었다.”

- 연경애 역, 『일제에게 붙잡힌 한 한국 소녀의 경험』(『7가교 사신』)

(고)해남, 172쪽

- 152 -



여성이나 (이름 없는) 만세꾼, 기생, 걸인 등 3.1 운동에 참여한 다원적 계층을 드러내어야만 이들의 대중의 힘에 대한 자각이 이후의 독립운동과 사회 변혁을 이끌어 가는 힘이 되었다는 이후의 서술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자료로 이해하기

전국 각지에서 전 계층이 참여한 3·1 운동

29일 오전 11시 30분경에 수원 조합 기생원들이 자체 의원으로 검사를 받기 위하여 들어가다가 경찰서 앞에서 만세를 부르며 돌려 병행 안으로 들어가 뜰 앞에서 만세를 연이어 부르다가 …….

- 『매일신보』, 1919. 3.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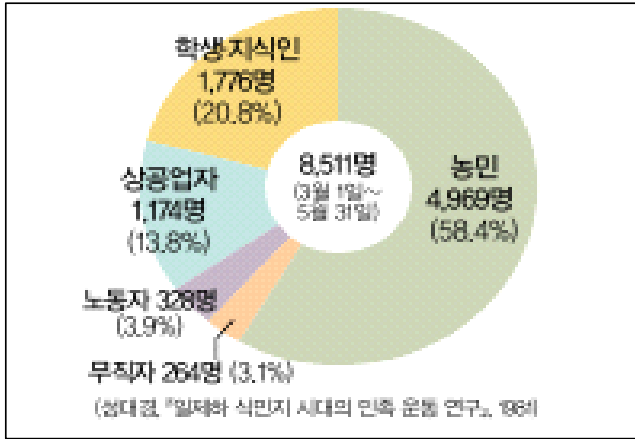
수 만세 시위를 전개하는 여성들

- 찬안군 직산 금광의 한국인 광부 100여 명이 지난 27일 밤에 양대 한병 주재소에 몰려가서 항성을 지르며 돌을 던지는 것을 해산하라 하였으나 …….
- 광주 시내의 한국인 상점은 26일부터 갑자기 철시(鐵市)하고 일제히 휴업하여 오는 모양인데 …….
- 강경에서 지난 장날에 군중 일당이 소요를 일으킨 사실을 이미 보도한 바이나 그때 주모자 17명을 검거한 이후로 감시 진정되었다더니 29일 장날에 또 군중이 태극기를 들고 만세를 불러 …….

- 『매일신보』, 1919. 4. 1.

» 서울, 평양, 원산 등 여러 지역에서 시작한 만세 시위는 전국으로 퍼져 나갔으며, 3개월 동안 약 1,600여 회 일어났다. 3월 말에서 4월 초에는 만세 시위가 절정에 달하여 전국에서 만세의 환성이 끊이지 않았다. 조선 총독부에서 발행한 『매일신보』에 따르면 기생, 광부, 상인과 장물 버러 간 일반인 등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위에 참여하였고, 만세 시위를 과잉 진압하는 등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자 한병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무력 투쟁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림2〉 전 계층이 참여한 3.1운동
(송호정 외, <한국사>, 지학사, 176쪽)



<그림3> 3.1운동 관련 수감자의 계급·계층별 구성 (박중현 외, <한국사>, 해냄에듀, 168쪽)

2) 서울 중심을 벗어나 지역성 살리기

1919년 3월 1일의 만세시위가 ‘탑골공원, 즉 서울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었다’고 인식하게 된 것은 기존 교과서 서술의 탓이 크다. 같은 날, 다른 6개 도시에서 비슷한 시각에 일어났던 만세 시위²⁾는 1970년대 들어와 처음으로 교과서에 서술되기 시작했지만, 이후 발행된 교과서에서도 서울의 만세 시위만을 강조하는 서술이 계속되어 왔다. 현재의 교과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표 4> 현 교과서의 서술

<p>같은 시각 학생들과 시민들은 <u>탑골 공원에 모여</u>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만세 시위를 벌였다. 일제의 탄압에도 <u>만세 시위</u>는 전국적으로 퍼져 나갔고, 국외에서도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p>
--

- 초등, 124쪽

2) 김정인, 2018, 앞의 논문, 171~172쪽.

학생과 시민들이 모여 있던 탑골 공원에서는 민족 대표가 나타나지 않자, 군중 중 한 명이 팔각정 단상에 올라가 독립 선언서를 낭독하였다. 이후 학생과 시민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종로를 행진하였다. 여기에 고종의 국상에 참석하러 모여든 시민들이 합세하면서 만세 시위는 서울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만세 시위는 대도시에서 지방 중소 도시와 농촌으로 확산되었다. 시위가 확산되면서 학생과 시민들이 주도하던 시위는 점차 노동자와 농민층이 주도하였으며 시위도 점차 조직화되었다.

- (고)동아, 157쪽

서울을 제외하고는 모두 북부 지방에서 일어났던 3월 1일의 만세시위의 지역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뭉뚱그려 서울 중심으로 서술하는 것은 우리 교과서가 여전히 남한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며 이는 평화적 시각에서 개선이 필요한 서술이다. 남과 북을 모두 아우르는 통일 지향적인 3.1운동 서술이 필요하다.³⁾

물론, 현 교과서 중에는 이러한 지적에 유념하여 서울 중심 서술에서 벗어나 3.1운동의 다원적 지역성을 제대로 담아내고자 한 흔적도 보인다.

<표 5> 3.1운동 서술 중 서울 중심에서 벗어나고자 한 시도

(중) 비상	학생과 시민들은 탑골공원에서 만세시위를 시작하였다. 이날 <u>평양 등 주요 도시에서도</u> 만세 시위가 벌어졌다.(181쪽)
(중) 전개	마침내 1919년 3월 1일 서울, <u>평양, 원산, 의주 등 주요 도시에서</u>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며 만세 운동이 시작되었다.
(중) 지학사	같은 해 3월 1일에는 서울에서 기미 독립 선언서가 발표되었다. 이 날 학생들과 시민들은 <u>서울, 평양, 원산, 선천 등 전국 각지에서</u> 만세시위를 전개하였고 ……

3) 주성진,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서술 분석 및 수업 활용방안 -3.1운동을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4쪽.

(고) 해남	3월 1일 <u>서울과 평양, 의주, 원산 등에서</u> 시작한 시위는 빠르게 전국으로 퍼져 갔다.
(고) 미래엔	탑골 공원에서는 …… 서울은 만세 소리로 뒤덮였다. 비슷한 시각 <u>평양, 원산 등에서도</u> 만세시위가 전개되었고, 순식간에 전국 주요 도시로 확산되었다.
(고) 금성	1919년 3월 1일, 탑골 공원을 비롯하여 <u>평양, 원산, 의주 등에서</u> 만세 시위가 일어났다.
(고) 비상	1919년 3월 1일, 민족 대표들은 탑골 공원에서 …… 비슷한 시간에 <u>평양, 의주, 원산 등</u>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도 독립 선언과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다.
(고) 씨마스	같은 날 <u>평양·진남포·안주·선천·의주·원산 등</u> 지방의 도시에서도 독립 선언과 만세시위가 있었다.
(고) 천재	같은 시간 탑골 공원에서는 …… <u>평양, 원산, 의주 등</u> 전국 주요 도시에서도 만세 시위가 전개되었다.
(고) 지학사	<u>서울·평양·원산 등지에서</u> 학생들이 주도한 만세 시위에 대규모의 시민이 합세하면서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였다.


한편, 이번 교과서 중에는 서울-지방 대도시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사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만세 운동 알아보기’ 과제를 제시한 교과서가 눈에 띄었다. 3.1운동 시기 서울에 나타난 특징으로 전국의 시위를 보편화하는 것은 이 운동이 전국적으로 대중화한 양상을 규명하기 어렵게 한다.⁴⁾ 2000년 이후 활발히 진행된 3.1운동 지역사 연구 성과를 교과서에 담아내는 것은 다양한 상황 속에 놓였던 과거행위자의 선택을 제시하고 당대의 시공간 속에서 생각해 보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3) 3.1운동을 바라보는 다원적 시선

교과서의 독립운동 파트에 대한 서술이 지나치게 민족 중심이라는 지적은 계속되어 왔다. 집필자들도 이를 의식해 이번 교과서에서는 민


4) 조동걸, 1970, 「3.1운동의 지방사적 성격-강원도 지방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47, 130쪽.

<표6> 지역사 차원에서 접근한 3.1운동



목포에서 재현되고 있는 3·1 독립 만세 운동

[역사의 판단력과 문제 해결력]



1. 터졌구나 터졌구나 조선 독립생소리)
십 년을 참고 참아 이제 터졌네
삼천리의 금수강산 이천만 민족
살아 있구나 살아 있구나 이 한소리에

2. 피도 조선 배도 조선 이 피 이 배는
살아 조선 죽어 조선 조선 것이라
한 사람이 불려도 조선 노래
한 곳에서 나와도 조선 노래

○ 목포 정명여중·고 4·8 독립 만세 운동 재현 행사(왼쪽)와 독립가(오른쪽)

목포에서의 독립 만세 운동은 1919년 4월 8일과 9일에 일어났다. 4월 8일 아침 연흥학교, 정명여학교, 목포 공립보통학교, 간이 상업 학교 학생들이 시가지로 쏟아져 나왔다. 시내 여기저기서 태극기를 흔들며 독립 만세를 외치고 격문을 뿌렸다. 「독립가」 가사는 1919년 4·8 독립 만세 운동 당시 사용되었던 것이다.

「독립가」는 1983년 정명여고 교장이었던 유애나 선교사의 시택 찬장 보수 공사 중에 발견되었다. 이 외에도 2·8 독립 선언서, 3·1 독립 선언서, 태극기 등 유품 7점이 발견되었다. 정명여자 중·고등학교에서는 2001년부터 매년 4월 8일을 전후로 교정에서 출발해 1919년 당시의 행진 경로를 따라 만세 행렬을 벌이는 재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사 우리 지역에서는 만세 운동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알아보자.


(고)해님, 171쪽

지역사
탐방

학생들이 만세 운동의 중심에 서다

대구광역시





▲ 대구 3·8 만세 시위를 재현하는 학생들

누리집
대구근대역사관

대구광역시에서 만세 시위가 열린 날은 3월 8일이다. 만세 시위를 준비한 사람들은 일본 헌병의 감시를 피하여 많은 사람을 모으기 위해 대구 서문시장의 장날을 택했다.

3·8 만세 운동은 대구의 계성학교(현 계성고등학교), 신명여학교(현 신명고등학교) 교사와 학생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날 시위에 참여한 사람은 1천여 명에 달하였고, 일본 헌병은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며 시위대를 진압하였다. 이후 3월 12일부터 의성을 시작으로 성주·안동·영덕 등 인근 지역으로 만세 시위가 퍼져 나갔다.

(고)씨마스, 179쪽

- 157 -

족주의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부각시키는 내용을 의도적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독립운동에서 국가주의, 민족주의를 벗어나기 위해 외부 제3자의 시선에서 사건을 바라보기도 하는데, 이는 우리-그들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외부의 시선으로 자유, 평화의 가치를 객관화하여 바라보게 한다.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일본과 중국 언론 보도를 분석하여 일본의 논리를 비판하는 정도의 학습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 활동 자체도 언론 보도의 습성을 이해하는 사료비판으로서 진일보한 것이나 출제자의 의도가 반영된 닫힌 학습활동의 한계를 보이는 점은 아쉽다.

<표 7> 3.1운동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을 제공하는 자료

시료 외국 언론이 보도한 3·1 운동

중국 『매주평론(每週評論)』의 평론(1919. 3. 23.)

이번 한국의 독립운동은 위대하고 비장하다. 그들은 정확한 이념을 가졌고, 무력이 아니라 민의를 바탕으로 운동을 끌어가는 세계 혁명사의 신기원을 개척하였다.

미국 『뉴욕 타임스』의 보도(1919. 5. 21.)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가 자기를 지배하고 군대를 앞세워 압박하는 것을 반대하고, 그에서 벗어나고자 하였다. 제국주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은 신성한 권리임에 분명하다.

실화 ① 외국 언론이 3·1 운동의 어떠한 점을 높이 평가했는지 살펴 보자.

(고)천재, 183쪽

탐구 교실 3·1 운동에 대한 상반된 시각의 언론 보도

언론은 기사에 반영된 시각에 따라 같은 사건을 상반되게 보도하기도 한다. 3·1 운동을 보도한 다음의 상반된 시각을 비교해 보고, 그러한 차이가 나타난 까닭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역사 사실 이해
- 역사 자료 분석과 해석
-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 역사적 판단력과 문제 해결력
- 창의성과 상호 존중

자료 1 3·1 운동에 대한 일본 언론 보도

3월 중순경부터 경성남북 양도, 특히 불온한 주민의 소굴인 안동을 중심으로 폭동이 반발하였다. …… 불강한 한국인의 선동이 군중을 몰아 제멋대로 흉폭함을 드러내는 경향이 있어서 관권(조선 총독부)은 주모자를 검거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진압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상황이 앞을 쓴 바와 같으므로 이를 진압하는 데에 부득이 무기를 사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야사위 신문』, 1919. 4. 6.

자료 2 3·1 운동에 대한 중국 언론 보도

한인들이 의기를 일으키는 것은 일본의 무도함 때문이다. 일본이 한인의 국가사상 소멸과 독립에 대한 희망을 파괴하려고 시도한 지 십여 년이 되었다. …… 한국인의 이런 독립운동으로 한인에 대해 더욱 간혹해졌다. 오직 세계에 일본의 폭력성을 알리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일본이 비록 이를 강준다고 할지라도 이미 천하에 드러났으니 이것은 한국인의 한 줄기 희망이다.
-『민국일보』, 1919. 3. 23.

자료 3 일제의 보도 통제에 대한 폭로

사건의 발단은 조선의 사실상 마지막 황제 고종의 인산(圓山 殯)을 이틀 앞둔 3월 1일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소요의 기미가 있는데, 설사 독립운동과 같은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나더라도 이에 대해 일제의 보도를 하지 말라는 경시청장의 통고문을 접수한 것은 이보다 앞선 1월 28일의 일이었다. 2월 14일에도 한국인의 독립 선언문 보도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2월 19일 7개면 크로니클지는 보도 금지된 사실과 선언문을 배포한 사람들이 비밀 제판을 받고 1년간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실을 담은 기사를 크게 보도하였다. …… 그러나 2월 19일 기사 보도 후 경찰 당국으로부터 만어 금지령을 당하고 말았다.
-『개편 크로니클』, 『한국의 독립운동』.

자료 4 일제의 만행으로 폐허가 된 재암리 마을



1919년 4월 15일 화성 재암리에 피건된 일본군은 2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을 예매단으로 모이게 한 후, 밖에서 문을 잠근 채 무차별 사격을 가하고 불을 질러 학생의 증거를 인멸하려 하였다. 이 사건은 외국인의 신고사실이 찍은 사진과 목격담이 보고서로 작성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1 자료 1, 2를 읽고 3·1 운동을 각각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자.

2 자료 2, 3, 4를 읽고 자료 1을 비판하는 기사를 써 보자.

(고)금성, 179쪽

사료로 보는 역사 인도의 네루가 바라본 3·1 운동

코리아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는 뜻의 조선이라는 옛 지명으로 다시 일컬어지고 있다. 일본은 코리아에서 어느 정도 근대적인 개혁을 실시했으나 한편 한민족의 정신을 가차 없이 유린했다. 코리아에서는 오랫동안 독립을 위한 항쟁이 계속되어 여러 차례 폭발했다.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1919년의 독립 만세 운동이었다. 한민족, 특히 청년 남녀는 우세한 적에 맞서 용감히 투쟁했다.

…… 그들은 이와 같이 자신들의 이상을 위해 희생하고 순국했다. 일본이 한민족을 억압한 것은 역사상 보기 드문 끔찍한 암흑의 일면이다. 코리아에서는 대학을 갓 졸업한 젊은 여성과 소년기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너도 틀림없이 깊은 감동을 받을 것이다.

- 네루, 『세계사 권역』-

생각 기우기

01 네루가 3·1 운동에 감동한 까닭을 찾아보자.

02 3·1 운동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해 보자.



(고)동아, 158쪽

천재 <한국사> 교과서는 중국의 진보 잡지 <매주평론>의 평론과

미국 <뉴욕 타임즈>의 기사를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열린 질문을 던진다. 제시된 사료는 3.1운동을 ‘민의를 바탕으로 한 혁명’으로 평가하거나 ‘제국주의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으로 정당성을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이 교과서 본문의 수준을 넘어선 3.1운동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민족의 틀 안에서 ‘나라를 빼앗긴 민족이 응당 해야 할 투쟁’으로 3.1운동을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한발짝 물러선 외국의 시각에서- 어쩌면 미국과 같은 제국주의자의 시각에서 - 3.1운동을 바라봄으로써 운동의 가치를 되새기고 제국주의를 비판하며 평화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3.1운동이 세계 약소 민족의 반제국주의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서술은 중국의 5.4운동을 제외하고는 사료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지만, 현 교과서에도 이 내용은 반복되어 서술된다. 동아출판 고등 <한국사> 교과서에 네루를 언급한 것도 그러한 세계사적 의의를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시된 글만으로 인도기 3.1운동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자료의 의미도 있다. 네루의 ‘감동’이 낮 뜨겁긴 하나 네루의 글 원문을 제시하여 3.1운동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드러내며 평화의 의미를 다룬 것은 의미가 있다.

2. 3.1운동의 폭력성에 대한 서술

1) 일제 탄압을 대표하는 화성 제암리 학살

초·중·고 모든 학교급의 교과서에서 일제의 잔인한 진압의 사례로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을 제시한다. 초등 교과서에서부터 폐허가 된 제암리의 사진을 크게 싣고 있으며 고등 교과서에서는 따로 코너를 마련해 관련 사료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묘사된 학살 상황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시킨다. 일제의 잔혹한 진압- 일제의 만행을 강조하려는 의도는 이해하나 반드시 필요한 서술이었던지는 의문이다. 희생자(23명)에 대해서도 정확히 서술하지 않아 그 규모를 잘못 인식할 우려도 있다.



<그림4> 제암리 학살에 대한 서술
(도면회 외, <한국사>, 비상, 175쪽)

2) 탄압하는 일본인과 희생·저항하는 한국인의 프레임

3.1운동에 대한 교과서 서술의 기본이 되는 ‘비폭력 만세시위 확산-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시위의 폭력투쟁화’의 프레임이 형성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⁵⁾ 이후 교과서에서 이 프레임이 반복되고 있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재 교과서도 이 틀을 유지하고 있다. 해남에듀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평화 시위는 왜 무력 시위로 바뀌었을까?’의 질문을 본문의 한 소재목으로 크게 다루어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이 무력 시위로 변질된 원인이라 서술하고 있다.

평화 시위는 왜 무력 시위로 바뀌었을까?

은 나라가 독립 만세 함성으로 뒤덮이자 당황한 일제는 경찰, 근대, 소방대, 제향군인회 등을 동원하여 총칼로 시위 참여자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이에 따라 비폭력 평화적 시위는 헌법 주제소 습격, 친일파 공격 등 적극적인 무력투쟁으로 바뀌었다. 시위가 격화되자 일제는 화성 제암리 사건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보복성 학살을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 (고)해남, 171쪽

5) 3.1운동의 확산에 대해 1990년대 이전 발간된 교과서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도 독립 만세가 천지를 진동하였으며 거국적 민족 운동은 중국, 만주, 연해주와 미국 등 해외 각지까지 번졌다’라는 정도의 서술을 반복해 왔다.

이러한 서술 프레임은 우리의 비폭력 평화 투쟁 노선이 일본의 폭력과 탄압 때문에 무력투쟁으로 변질되었다는 서술을 통해 폭력시위로의 전환을 정당화한다. 또한 ‘우리-한국인’와 ‘그들-일본인’을 구분하여 조선 민족 대 일본 민족의 대결 구도를 형성하고 반일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 3.1운동 과정에서는 교과서 속에 전형화된 ‘탄압하는 일본인’과 ‘희생당하고 저항하는 한국인’ 그 사이의 어느 지점에서 행동했던 이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사례 발굴을 통해 국가주의화된 서술을 벗어나 3.1운동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3) 폭력시위로의 변화를 바라보는 관점

3.1운동의 변화 양상에 대해 같은 내용의 서술이어도 뉘앙스의 차이를 보이는 교과서가 있다. 다른 교과서들이 폭력 시위로의 변화 양상만을 서술하는 반면, 아래 두 교과서는 이 변화에 대해 나름의 평가를 내린다. 특히 미래엔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비폭력 평화 시위에서 민중 주도의 폭력 시위로의 변화를 ‘발전’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다.

일제가 만세운동을 무자비하게 탄압하자,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 참가자들이 일제의 식민 통치 기관인 경찰서 등을 파괴하는 등 폭력적인 방식으로 저항 의지를 드러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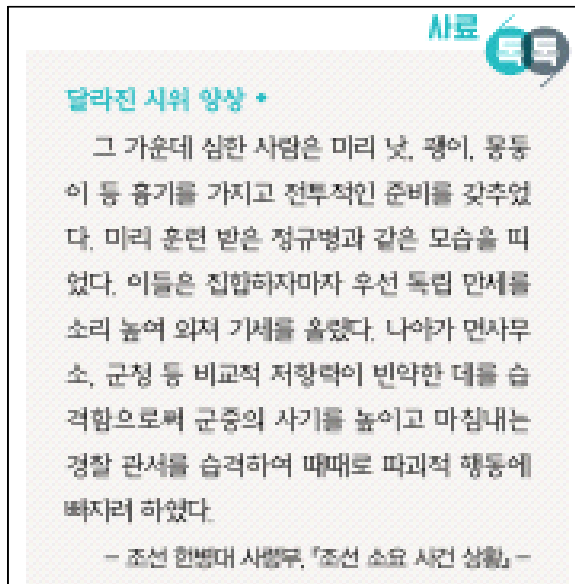
- (고)천재, 172쪽

일제는 헌병 경찰은 동원하여 무차별 사격을 가하는 등 무자비하게 탄압하였다. 이에 농민은 경찰 관서, 헌병대, 면사무소 등 식민 통치 기관을 습격, 파괴하였다. 그리하여 비폭력 평화 시위는 점차 민중이 주도하는 무력 투쟁 운동으로 발전해 갔다.

- (고)미래엔, 170쪽

그리고 미래엔 교과서는 ‘발전해 갔다’ 옆에 <그림주석을 달아 오른 쪽 날개의 ‘사료 톡톡’을 통해 (폭력적으로) 변화된 시위 양상을 제시

하였다. ‘전투적인 준비’를 통해 ‘훈련 받은 정규병’과 같았던 군중이 ‘저항력이 빈약한 데를 습격’하고 ‘파괴적 행동’을 하는 것을 ‘발전’이라는 한 단어로 평가해도 되는지 의문이다.⁶⁾ 학계에서는 1980년대 이후 신진학자들이 3.1 운동에서 폭력행동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계획적, 공세적으로 실행된 폭력시위도 다수 존재했음을 연구를 통해 밝혀내며 비폭력 평화 노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의 등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에 평화적 관점에서 더 고민이 필요하겠다.



<그림5> 달라진 시위양상 서술
(한철호 외, <한국사> 미래엔, 170쪽)

6) 폭력성을 드러내는 서술은 일본 헌병이나 경찰의 죽음을 강조하며 3.1 운동을 폭동 또는 소요라고 부른 당시 일본 정부의 시각을 고려할 때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다(김정인, 2018, 앞의 논문, 176쪽).

4) 3.1운동의 의의로서의 ‘비폭력성’

대부분의 교과서들이 폭력시위로의 전환을 서술하고 있지만 결국 운동 초기의 비폭력적 투쟁 형태를 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전개 과정 이후에 서술된 ‘3.1운동의 의의’에서 사료를 통해 한번 더 비폭력(무력을 사용하지 않음) 노선을 언급함으로써 3.1 운동은(일제의 야만적인 진압으로 무너지긴 했지만) 비폭력 평화 노선을 견지하고자 했음을 보여주려 한다. 비폭력성의 강조는 3.1운동이 방법 면에서도 정당했음을 부각시키는 한편, 상대적으로 일제의 잔학성과 부도덕성을 강조한다. 피해와 가해를 명확히 구분시키는 서술이다.

<표 8> 3.1운동의 성격에 관한 서술

Q 역사 깊이 보기 3·1운동의 전개

자료 1 초기의 만세 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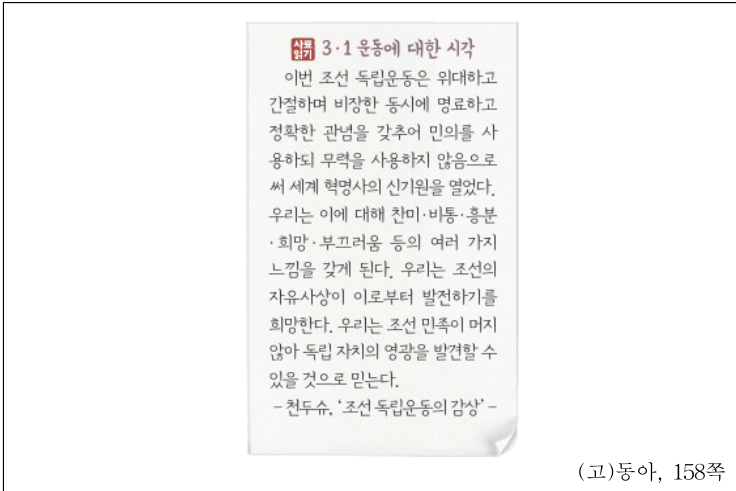
시위를 목격한 외국인들의 말에 의하면, 이번 시위는 그들이 이제까지 목격한 것 중에서 가장 특이한 것 중의 하나였다고 한다. 새롭게 눈을 뜬 자유로 백인이 고동치는 이 개천 백의의 군중은, 그들에게 아무런 명분도 없이 고문과 악탈을 자행해 온 바로 그 일본인들에 의해 사방이 포위되었다. 그러나 시위대는 일본인들의 과오에 대해 보복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조국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 C.W. 갠들, “한국 독립운동의 진상”-

자료 2 만세 시위와 일제의 폭력 진압

그때 인심은 극도로 동요되고 학생은 교복을 벗고 백의에 흰 헌팅(모자)을 쓰고 서로 만나는 대로 인사뿐이요, 말은 하나도 건네지 않고 학생들의 강인 의지는 불타고 있었다. 가리의 긴장은 무서웠고, 비밀 신문 수십 종이 발행되어 돌며 개마다 만세 소리가 물 끓듯 컷는 지마 일경은 말을 타고 3척가량이나 되는 철 망치를 휘두르며, 소방부는 몽둥이를 들고 발광하듯이 우리 동료들을 사냥해 하였고, 가리며 돌리 어디마다 반장한 왜경이 서서 가해를 하니. - “신천지”(1946)-

3·1 운동 초기에는 대체로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시위가 전개되었다. 일제는 평화로운 시위를 잔혹하게 탄압하였지만, 한국인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만세 시위를 이어 갔다.

(고)동아 ,157쪽



그러나 3.1 운동 초반부터 평화적 시위와 폭력 시위가 혼재되어 있었음을 밝힌 연구도 있다.⁷⁾ 이 연구는 농기구 등을 동원해 지역 내 통치기관들을 습격하여 파괴하고 관공리 살해도 불사하는 계획적 폭력 투쟁이 빈발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폭력 항쟁이 이후 의열투쟁 등 폭력적 항일활동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교과서 안에서도, 또 밖에서도 3.1운동의 비폭력성에 대한 서술이 이처럼 명확하지 않기에 3.1운동에 대해 학습하는 학생들은 3.1운동의 성격으로서의 폭력성에 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3.1 운동이 비폭력 시위를 표방하고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폭력시위로 번졌다면 비폭력 노선은 이미 사라졌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일제 강점기 투쟁의 방식에 대해 폭력/비폭력으로 규명하려는 시도에 대한 의문도 있다. 한 인터넷 검색포털 사이트의 지식인 질문에 올라온 질문⁸⁾은 학생들

7) 김영범, 2018, 「3.1운동에서의 폭력과 그 함의」, 『정신문화연구』 41-4, 95쪽.

8) 질문이 올라온 주소는 다음과 같다. 3.1운동, 평화, 폭력으로 검색하면 이와 같은 질문이 다수 게시되어 있다.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1001&docId=2658>

의 이러한 혼란을 보여준다.

Q 근현대사)31운동은 평화적이었나요 ?폭력적이었나요??

삼일운동에 대해서 배우는데
평화적인 만세운동이었나요?
아니면 약간폭력도들어가나요??
시킴문제로 나올거같아서여 ㅠㅠ

A 2개 채택순 전체보기 최초

비공개 답변
고수 질문자 채택

폭력이 있었다고 교과서에는 언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평화적인 만세운동이 맞습니다.

2016.12.08.

표정 2

ordo** 님 답변**
조수 · 채택답변수 11

3.1운동은 폭력투쟁입니다.

Q 고1 한국사 3.1운동은 비폭력시위였나?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국사를 공부하다가 약간 의문이 들어서 여기서 질문을 해볼게요.
교과서에는 3.1운동이 비폭력평화시위였다고 하는데 사료를 보면

"그 가운데 심한 사람은 미리 낫, 갱이, 몽둥이 등 흉기를 가지고 전투적인 준비를 갖추었다. 군중이 나가고 물러남은 오로지 지휘자의 명령에 따랐다. 미리 훈련받은 정규병과 같은 모습을 띠었다. 이들은 집합하자마자 우선 독립 만세를 소리 높여 외쳐 기세를 올렸다. 나아가 면사무소, 군청등 비교적 저항력이 빈약한 데를 습격함으로써 군중의 사기를 높이고 마침내는 경찰 관서를 습격하여 때때로 파괴적 행동에 빠지려 하였다."

--콘도 소우이지, "일본 헌병대 보고 6"--

제생각에는 3.1운동이 일제의 무자비한 통치에 저항한 운동은 맞으나 비폭력평화시위라는 단어를 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림6>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

33598&qb=MzHsmrTrj5kg7Y+J7ZmU7KCB7J207Jel64KY7JqU&enc=utf8§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11&dirId=110202&docId=341110729&qb=My4x7Jq064+ZIOu5hO2PreugpSDsi5zsnIQ=&enc=utf8§ion=kin.ext&rank=1&search_sort=0&spq=0

질문 속에 한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혼란이 드러나 있다. 명백히 폭력을 동반한 저항이 있었음에도 뒷부분에 가서 아무렇지 않게 비폭력의 평화성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학생들을 혼란에 빠뜨릴 뿐이다. 3.1 운동 서술에 있어 폭력 시위로 번져가게 된 원인이나 폭력성 여부를 가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폭력을 동반하면서까지 투쟁하며 이뤄내고자 했던 가치를 찾는 것이다.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좁은 의미의 평화의 범위를 넓혀 평화의 정신을 넓게 본다면, 일제 강점기 다양한 투쟁 방법들을 인정하고 방법보다는 이념과 정신에서 의미를 찾는 3.1운동 서술이 가능할 것이다.

3. <3.1 독립선언서>와 평화 정신

평화적 관점의 3.1운동 교육은 운동 과정에서의 폭력과 희생을 부각하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될 것이다. ‘폭력과 희생을 무릅쓰면서까지 당시 사람들이 독립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 대답할 수 있게 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3.1 독립선언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⁹⁾

참여와 민주주의, 공화주의 등 새로운 가치를 찾아 제시해 왔던 그간의 3.1운동 교육에서 <3.1 독립선언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2015년 9월 국사편찬위원회가 공개한 「2015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역사과 교과서 집필기준 시안」에서 ‘3.1운동 당시의 독립선언서에 제국주의의 침략을 비판하고 평화공존을 주장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는 사실에 유의한다’로 <3.1 독립선언서>를 부각시키기도 했다. 이는 국정교과서 확정·발표 이전에 김정제를 전제로 하여 학계 인사들의 참여로 작성된 것이었다. 그러나 국정교과서 소동을 겪으며 이 내용은 사라져 버렸다.¹⁰⁾ <3.1 독립선언서>를 통해 제국주의 침략

9) 김경미, 2019, 「3.1운동을 어떻게 서술하고 가르칠 것인가」, 『한국교육사학』 41, 14쪽.

10) 국정화 이후 김정제로 수정된 2015 역사교육과정의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집필기준」은 집필기준 적정화·최소화 원칙에 따라 단원별로 대강의 집필기준만을 제시하고 있다. 3.1운동이 포함된 대단원에 제

에 반대하고 평화와 평등이라는 인류 보편가치를 추구했던 3.1운동의 의미를 되살리려는 시도는 이렇게 무산되었다.

현재 사용되는 초·중·고 대부분의 교과서 역시 <3.1 독립선언서>를 다루고는 있지만, 이 사료를 다루는 정도와 방식은 교과서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표 9>현행 교과서의 <3.1 독립선언서> 기술 방식

미제시	(중)동아, (중)금성, (중)비상, (고)씨마스
원문의 일부 제시	(고)비상, (고)미래엔, (고)동아, (고)금성
원문 일부 + 해설	초등, (중)천재, (고)지학사, (고)해냄
원문 일부 + 질문	(중)미래엔(운동의 과정), (중)지학사(선언의 내용), (고)천재(선언에 나타난 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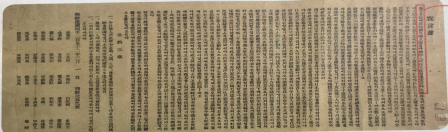
이 중 주목할 만한 부분은 원문의 일부를 제시한 후 이에 대한 해설을 덧붙인 교과서들이다.

시된 집필기준은 다음과 같다. “일제 식민지 지배와 민족 운동의 전개 - 일제 지배 정책의 내용과 특성을 시기별로 이해하고, 3·1운동 이후 전개된 국내외 민족 운동의 흐름을 국제 정세의 변화에 유의하며 서술한다. 일제 강점기에 도입된 근대 문물의 내용과 근대 의식의 확산이 도시와 농촌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제시하고, 여성 운동을 비롯한 사회 운동의 전개 과정을 설명한다. 일제가 침략 전쟁을 벌이면서 강요한 인적, 물적 동원 양상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의 피해 실태를 인간의 존엄성 차원에서 접근하도록 서술한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 세력의 신국가 건설 구상을 살펴봄으로써 민족 운동과 광복을 연속적인 관점에서 제시한다.”

<표 10> 교과서 상에서 3.1 독립선언서를 다룬 자료

교과서 속으로

3.1 독립 선언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



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한 나라는 정과 조선인이 자주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한다.

㉔ 3.1 독립 선언서(독립 기념관)

3.1 운동 때 종교계 인사들이 작성한 독립 선언서에는 우리나라가 일제의 간섭과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한 자주적인 나라임을 국내외에 알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초등, 123쪽

자료

거족적인 민족 운동으로 발전한 3.1 운동



▲ 참가 인원 1만 명 이상
대규모 시위 지역
● 대규모 시위 지역

오늘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이며, 조선인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대의를 분명히 하며, 자손만대에 깨우쳐 자주와 독립을 유지하는 올바른 민족의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한다.

- '3.1 독립 선언서' -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빛나는 우리들 대한 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 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 대한민국 헌법 전문, 1948. 7.17.
(국가법령정보센터) -

★ 3.1 운동 당시의 봉기 지역

3.1 운동은 민족 대표들이 표명한 '비폭력 평화 시위'로 출발했지만, 시위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민중이 대거 가담하고 폭력적 양상을 나타냈다. 이렇게 민중이 운동의 주체가 되면서 근대적인 주권 재민주의에 근거한 민주 공화정을 수립하려는 이념인 공화주의가 민족 운동의 기본적인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바로 이 공화주의에 근거하여 세워진 국가이다.

(중)천재, 179쪽

자료

3.1 독립 선언서(기미 독립 선언서)

[자료 분석과 핵심]

오늘 우리 조선의 독립은 조선인이 정당한 변명을 이루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이 잘못된 길에서 빠져나와 동양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 또 중국이 일본에 망을 빼앗길 것이라는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의 중요한 부분인 동양 평화를 이를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조선의 독립이 어찌 시소한 감정의 문제인가!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인도)와 정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 3.1 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사업 추진 위원회, 『열고 버리게 읽는 3.1 독립 선언서』

핵심 3.1 독립 선언서에서 내세운 비폭력 저항이라고 하는 투쟁 형태는 다수의 참가를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일본 군국주의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패배주의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3.1 독립 선언서는 뒷날 친일파로 전향한 최남선이 작성해서 평가절하되기도 하지만,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저항뿐만 아니라 동양 평화의 인류 행복 등 보편적인 평화 사상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고)해님, 169쪽

초등 교과서는 <3.1 독립 선언서>의 원본 사진과 함께 독립 선언의 내용을 표면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의 이해 단계를 고려한 사료에 대한 일차적 해석으로 보인다. 반면 천재교육의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서는 주권재민·공화주의의 원리를, 해남에듀의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비폭력 저항의 투쟁과 보편적 평화 사상을 <3.1 독립선언서>를 통해 끌어내고 있다. <3.1 독립 선언서>가 단순히 독립만을 외친 선언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평화의 정신까지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자료 제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대부분의 교과서는 <3.1 독립 선언서>를 형식적인 사료로만 제시하여 그 의미를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3.1운동 당시 해외 언론들은 운동을 보도하며 <3.1 독립선언서>의 전문을 싣고 이 선언서에서 ‘자유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하와이 영자신문, 『호놀룰루 애드버타이저』), ‘자유’와 ‘정의’(메켄지, 『한국인의 자유를 위한 투쟁』)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끌어낸 바 있다. 3.1운동을 투쟁과 폭력, 희생이라는 측면에서만 부각할 때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국가를 위해 투쟁했고 희생당한 국민’의 틀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 국가의 가치를 당연시하는 국가주의 시각에서 벗어나 <3.1 독립 선언서>에 담긴 자유와 평등, 평화의 보편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¹¹⁾

IV. 나가며

우리 교과서의 일제강점기 서술은 그 이전과 이후의 역사 흐름과 단절된 섬과 같은 서술이라 비판 받는다. 3.1운동 서술 역시 이전의 공화주의 논의와 이후 민주공화정의 수립, 민중의 참여와 다양한 투쟁 방법의 시도 등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단절된 개별

11) 김경미, 2019, 앞의 논문, 17쪽.

사건으로 서술하는 경향이 있다. 평화적 관점에서의 3.1운동 서술 분석을 주제로 삼은 본 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자세히 살펴 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교과서 서술에 대한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또한, '평화적 관점'으로 분석함에 있어 '평화'에 대해서도 다양한 입장이 존재할 수 있다. 역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로서 '민주주의, 평화, 인권'을 이제는 관용구처럼 내세울 수 있는 세상이 되었지만, 각자가 생각하는 이 가치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투고일: 2020.10.16, 게재확정일: 2020.11.30.]

【참고문헌】

1. 교과서

- 한춘희 외, 2019, 『초등학교 5-6학년군 사회 5-2』, 교육부
김덕수 외, 2020, 『중학교 역사2』, (주)천재교육
김태웅 외, 2020, 『중학교 역사2』, (주)미래엔
김한중 외, 2020, 『중학교 역사2』, (주)금성출판사
노대환 외, 2020, 『중학교 역사2』, 동아출판(주)
박근칠 외, 2020, 『중학교 역사2』, (주)지학사
이병인 외, 2020, 『중학교 역사2』, (주)비상교육
노대환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동아출판(주)
도면희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주)비상교육
박주현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주)해냄에듀
신주백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주)씨마스
송호정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주)지학사
이익주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리베르스쿨
최병택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주)천재교육
최준채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주)금성출판사
한철호 외, 2020, 『고등학교 한국사』, (주)미래엔

2. 연구논문

- 김경미, 2019, 「3.1운동을 어떻게 서술하고 가르칠 것인가」, 『한국교육사학』 41, 한국교육사학회
김남철, 2005, 「역사교육에서 평화교육 모색」, 『역사교육연구』 2, 한국역사교육학회
김영범, 「3.1운동에서의 폭력과 그 함의」, 『정신문화연구』 제41권 4호, 2018
김정인, 2018, 「3.1운동과 기억: 교과서로 익힌 상식을 짚어보다」, 『역사교육연구』 32, 역사교육학회
이동기, 2014, 「평화사관 무엇인가」, 『역사비평』 41, 역사문제연구소

- 정미란, 2019, 「3.1운동 수업 동행과 전망」, 『역사교육』 151, 역사교육연구회
- 정현백, 2001, 「역사교육과 평화교육의 만남」, 『역사교육』 80, 역사교육연구회
- 편집부 정리, 2019, 「100돌 맞은 3.1운동, 어떻게 가르칠까」, 『역사교육』 125, 전국역사교사모임
- 정상우, 2018, 「현행 역사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서술의 학습내용 계열성 검토 - 중단원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역사교육』 147, 역사교육연구회
- 정용숙, 2020, 「독일의 평화 지향 역사교육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중등 II 역사 핵심교수계획(2014)의 사례」, 『역사교육논집』 74, 한국역사교육학회
- 정용욱, 2018, 「3.1운동사 연구의 최근 동향과 방향성」, 『역사와 현실』 110, 한국역사연구회
- 조규태, 2011,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3.1운동 서술의 체계와 내용」, 『한국민족운동사연구』 69, 한국민족운동사학회, 2011
- 조동걸, 1970, 「3.1운동의 지방사적 성격-강원도 지방을 중심으로-」, 『역사학보』 47, 역사학회
- 주성진, 2020,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서술 분석 및 수업 활용 방안-3.1운동을 중심으로」, 수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병택, 2019, 「3.1운동 관련 교과서 서술의 변천 분석」, 『역사교육』 151, 역사교육연구회